

보도일시	2026. 08. 14 배포 즉시	위원장	이수진
담당	전국여성위원회	문의	02-2630-7082, 7085~7 womenminjoo@gmail.com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8월 14일은 열네 번째를 맞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2018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아홉 번째로 맞이하는 뜻깊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온전하고 정당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91년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에 진실을 알린 지 어느덧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일제의 전쟁범죄를 전 세계에 고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과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 연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역사 왜곡이 깊게 남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보호 관리 기반을 마련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11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하는 집단적 혐오와 추모시설에 대한 모욕·테러 행위를 엄단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법제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본적 매듭을 풀어야 할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교과서 왜곡과 베를린 소녀상 ‘아리’에 대한 철거 등을 통해 침략과 폭력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부정으로 국내외 극우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수요집회 현장의 참담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며, 피해생존자들과 유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이제 단 다섯 분뿐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보편의 인권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전시 성노예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 앞에 진정성 있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긴밀히 논의해 개정 법률을 철저히 집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증언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이루고, 다시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평화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08.14.(금)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